

보도시점 2025. 10. 29.(목) 15:00 배포 2026. 10. 29.(목) 13:30

이형일 부총리, 글로벌녹색성장서밋에서 기후대응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국제협력 강조

-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이 선순환되는 국제협력 모델 확산과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협력 제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0.29일(목) 11:20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개최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글로벌녹색성장서밋(GGGW Summit**)에 참석하였다.

*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 GGGW Summit: GGGI 연차총회(GGGW, Global Green Growth Week, 10.26~30일) 계기로 개최되는 고위급 회의(반기문 GGGI 의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강금실 글로벌기후환경대사, 길버트 시아메 잠비아 녹색경제환경부 장관 등 참석)

이형일 부총리는 탄소중립이 새로운 성장 동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도록 한국 정부는 최근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마련했다고 언급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새로운 국제협력 모델이 되도록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과 민간 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새로운 모델로서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Global Verified Carbon Market)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총장은 “한국그린뉴딜 신탁기금(KGNDTF*)을 통해 녹색투자 성과를 확대하고, 글로벌 고신뢰 탄소 시장(GVCM)을 통해 고신뢰 탄소 크레딧 제도와 인프라를 개도국에 확산하는데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Korea Green New Deal Trust Fund) 개도국 녹색성장 역량 강화, 녹색 사업 개발 등을 위해 재경부가 지원하는 신탁기금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국내 소재 주요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기구 (GGGI)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Global Verified Carbon Market) >

-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기준 활용을 통해 신뢰도를 높여 글로벌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한국 주도로 구축 중인 국제탄소시장
- 10.12일 제27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GVCM 세부 추진 방안」 발표
 - ① 규제시장과 자발적 시장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탄소 크레딧 발행
 - ② 개도국 등이 참여할 수 있는 GVCM 거버넌스 구축
 - ③ 크레딧 기록·발행에서 블록체인 기술도 활용

※ (참고) 부총리 축하

담당 부서	개발금융국 녹색기후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도익 (044-215-8750)
		담당자	사무관 이수호 (suholee90@korea.kr) 통번역전문관 김효정 (gongjudy@korea.kr)



1. 국문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형일입니다.

먼저, GGGW Summit을 준비해주신
반기문 GGGI 의장님, 김상협 GGGI 사무총장님과
GGGI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메리 로빈슨 前 아일랜드 대통령님,
길버트 시아메 잠비아 장관님,
우고 아스투토 EU 대사님,
알라누드 압달라 UAE 차관보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 기후위기 대응 패러다임 전환

내외 귀빈 여러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홍수와 같은 기후위기는
우리 삶과 경제에 이미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을
상반되는 목표로 보는 과거 방식으로는
기후 위기 대응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러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탈탄소 전환과 신산업 육성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탄생시키고,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탄소중립이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K-GX 전략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을 넘어,
한국의 경제 체질을 전면 개편하여
녹색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은 탈탄소 전환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확산, 수송 분야의 전동화,
10대 녹색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①전기차, ②배터리, ③태양광, ④풍력, ⑤SMR, ⑥전력기기, ⑦전력반도체, ⑧히트펌프,
⑨수소, ⑩CCUS

나아가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국제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GGGI와의 협력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그간 재경부-GGGI 협력과 향후 계획

그간 재정경제부는 GGGI 한국그린뉴딜신탁기금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우수한 기술이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수요와 한국의 기술 매칭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GGGI와 긴밀히 협력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새로운 국제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GGGI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이 새로운 국제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GVCM은 개발도상국에서 창출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국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신뢰도 높은 탄소 크레딧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민간투자 확대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이 새로운 자원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 마무리 말씀

내외 귀빈 여러분,

반기문 의장님께서는 과거에

“There is no Plan B, because there is no Planet B.”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기문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우리의 유일한 보금자리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Plan A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이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것은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오늘 GGGW Summit에 참가하신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한국의 노력에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GGGW Summit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영문

(1) 인사 말씀

Good morning, everyone.

I would first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to Chairman 반기문,
Executive Director 김상협,
and staff at the GGGI
for organizing this GGGW Summit.

Former President of Ireland 메리 로빈슨,
Minister 길버트 시아메 of Zambia,
Ambassador 우고 아스투토 of the EU,
Assistant Undersecretary 알라누드 압달라 of the UAE,
and distinguished guests,

it is a great pleasure to join you today.

(2) 기후위기 대응 패러다임 전환

Ladies and Gentlemen,

Climate change is already posing
a serious threat to our lives
and our economies as evidenced
by record-breaking heatwaves, droughts and floods.

Addressing this growing climate crisis requires stronge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llective action.

Korea is fully committed to joining in this global effort.

However, we also need to change the way we think about climate action.

We have viewe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conomic growth as competing goals for too long.

It is time to change this mindset.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and the development of new industries should also create new technologies, attract investment, and generate quality jobs.

This is the vision behind Korea's Green Transformation, or K-GX, Strategy.

Our goal is to create a virtuous cycle that turns carbon neutrality into new drivers for growth.

We aim not only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but also to transform our economic structure and become a global leader in green manufacturing.

To this end, we are working to decarbonize high-emitting industries, expand renewable energy, electrify the transport sector, and foster the growth of key green industries.

At the same time, we will further strengthen our cooperation with the GGGI to help extend this virtuous cycle internationally.

(3) 그간 재경부-GGGI 협력과 향후 계획

Over the years, the Korean Finance Ministry has supported a range of projects through the Korea Green New Deal Trust Fund at the GGGI.

This has helped developing countries address the climate crisis by utilizing

Korea's advanced technologies and experience.

Going forward,
we will further strengthen this partnership
by better connecting Korea's technological expertise
with the needs of our partner countries,

We will also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the GGGI
and develop new international cooperation models
that deliver both environmental and economic benefits.

In this regard, the Global Verified Carbon Market, GVCM,
developed with the GGGI
is a promising example.

The GVCM aims to convert emission reductions
of developing countries
into high-integrity carbon credits
that can be used internationally.

This will support emission reductions
while mobilizing more private investment
for climate action.

We hope this initiative will
become a valuable mode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limate action.

(4) 마무리 말씀

Distinguished guests,

Chairman 반기문 once said
“There is no Plan B
because there is no Planet B.”

These words remind us that
Earth is our one and only home.

We have no alternative.

That is why our only viable Plan A is
to tackle the climate crisis
in a sustainable way.

However, creating new opportunities
requires more than the efforts
of any single country.

I would like to ask
all our international partners
for the continued interest
and support on Korea’s efforts.

I hope this Summit will further
strengthen our collective efforts
and help turn climate action
into an opportunity for new growth.

Thank you.